



KT
위약금 면제 첫날
6000명 이탈
L1



Life

서울시
중소·소상공인
대출부담 낮춰
L4



자녀 공제 늘고, 배당 분리과세 도입... 생활밀착 제도 바뀐다

2026년부터 달라지는 것들

초등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포함
유아 무상교육 지원 4세까지 확대
최대 월 50만원 ‘청년미래적금’ 신설
최저임금 1만320원... 2.9% 인상

새해부터 자녀 수에 따라 소득공제가 늘고, 고배당 상장주식에는 분리과세가 도입된다. 대중교통 환급 확대와 전기차 전환지원금 신설, 최저임금 인상 등 2026년부터 국민 생활과 가계 부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제도 변화가 본격 시행된다. 세금·금융부터 교육·복지, 고용, 환경까지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 변화를 소개한다.

◆자녀 1명당 공제 50만원 인상

자녀 양육부터 주거, 노후까지 생애 전반의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한 세제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우선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늘어난다. 그동안 자녀 수와 무관했던 기본 한도를 자녀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까지 상향한다.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는 자녀 1인당 25만원(최대 50만원)이 추가된다.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도 자녀 수 기준으로 바뀐다.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이던 비과세 한도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확대돼 다자녀 가구 혜택이 커진다. 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이 발생해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

2026년 달라지는 제도 주요내용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자녀 수에 따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상향
자녀당 50만원, 최대 100만원 한도
(총급여 7000만원 초과시 자녀당 25만원씩 최대 50만원)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초등 저학년(만 9세 미만) 예체능 학원비 포함

■유아 무상교육·보육비 확대
기존 5세 → 4세
학부모 평균부담비용 보전(어린이집 월 7만원)



■최저시급 인상
1만30원 → 1만320원(2.9% 인상)

■청년미래적금 신설
만기 3년, 최대 월 50만원 자유적립형 비과세 적금
(최대 적립 시 2000만원 이상 목돈 마련 가능)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세율: 2000만원 이하 14%, 2000만원~3억원 20%,
3억~50억 25%, 50억 초과 30%

■증권거래세율 조정
코스피: 0.05%, 코스닥·K-OTC: 0.20%

자료/기획재정부 2026년(병오년)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수욕장을 찾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올해 첫 해돋이를 감상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을 수 있도록 소득요건(연 100만원 초과 시 배제)도 폐지된다.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직장 등의 사유로 부부가 불가피하게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주말부부’의 경우, 부부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부부 합산 공제 한도는 연 1000만원이다.

노후소득 과세도 완화된다. 사적연금 을 종신 형태로 수령할 경우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4%에서 3%로 낮춘다.

◆배당 분리과세 최고세율 30%

고배당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가 도입되고, 증권거래세율은 0.05%포인트 인상돼 2023년 수준으로 돌아간다. 배당 투자시 세금 부담은 감소하는 반면, 단기 매매시 비용은 느는 구조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은 2024년 대비 배당액이 감소하지 않고, 배당

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배당을 10% 이상 늘린 법인이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였던 증권거래세율은 과세형평 차원에서 원상복구된다. 코스피는 0.05%(농어촌특별세 0.15% 별도), 코스닥과 K-OTC는 0.20%로 각각 0.05%p 인상된다.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초등학교 저학년(만 9세 미만)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유아 무상교육·보육비 지원 대상은 기존 5세에서 4세까지 확대된다. 공립유치원은 월 2만원, 사립유치원은 11만원, 어린이집은 학부모 평균 부담비용인 월 7만원이 지원된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 지원 대상은 기존 중위소득 250% 이하 가구로 확대되고, 지원 비율도 높아진다. 3월부터는

전국 초·중·고교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이 전면 시행돼 학습, 복지, 건강, 상담 등을 통합 지원한다.

맞벌이 등으로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가정에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 지원 대상이 기존 중위소득 250% 이하 가구로 확대되고 정부 지원 비율도 확대된다.

3월부터는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이 전면적으로 시행된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은 기초학력미달, 심리·정서 불안, 경제적 어려움 등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조기에 발견한 뒤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청년 자산형성을 위한 ‘청년미래적금’도 새로 도입된다. 월 납입 한도 50만원, 만기 3년 자유적립식 비과세 상품으로, 정부기여금 비율은 일반형 6%, 우대형 12%까지 높아진다.

◆최저임금 월 215만6880원

시간당 최저임금은 1만320원으로 2.9% 인상된다.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15만6880원이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액도 함께 오른다.

육아기 10시 출근제가 시행돼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임금 감소 없이 하루 1시간 이내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해진다. 또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현행 월 21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배우자출산휴가 급여는 160만7650원에서 168만4210원으로 오른다.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노란봉투법은 3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되면 하청 노동자도 원청과 단체교섭이 가능해지고, 정리해고·구조조정도 쟁의 대상에 포함된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규모 줄이고 안목 키워... 새해 투자·소비 트렌드는 ‘선택’

2026년 트렌드 키워드

투자 인식 개선... MZ 투자 참여 늘어
가치 중심 합리적 소비로 만족 극대화
AI 기술 진화... 발견 중심 쇼핑 가속

금융과 산업, 유통 전반의 흐름이 2026년을 앞두고 동시에 변곡점을 맞고 있다. 자산을 대하는 태도부터 구매 기준, 기업의 운영 방식까지 전반적인 트렌드가 달라지고 있다. 이제는 ‘얼마나 규모가 크냐’보다 ‘잘 고르는 선택’이 경쟁력이 되는 시대다. 개인은 투자와 소비에서 스스로의 기준을 강화하고, 기업은 기술과 조직 구조를 재편하며 새로운 질서에 적응하고 있다. 2026년을 관통할 금융·산업·유통 트렌드는 이러한 선택의 변화가 만들어내는 구조적 전환으로 요약된다.

◆자산 운용 핵심층으로 떠오른 MZ세대

2026년 주목할 만한 금융 트렌드는 ‘투자의 대중화’다. 예·적금에만 국한됐던 과거와 달리, 소비자의 금융 역량과

투자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이다.

하나금융연구소에 따르면 금융자산 3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을 보유한 소비자 비중은 2024년 29.6%에서 2025년 31.5%로 증가했다. ‘중 자산’ 구간의 비중이 늘면서 평균 금융 여력이 개선되는 흐름이다.

특히, 새해에는 MZ세대(1980년대~2000대 초반 출생)의 투자 참여 흐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실제 지난해 세대별 투자·가상자산 예치 비중을 살펴보면 M세대가 34.9%로 가장 높았으며, Z세대가 26.3%로 그 뒤를 이었다. MZ세대가 투자 중심 자산 운용의 핵심층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아끼되 만족은 극대화 ‘듀프’ 소비 확산

고물가 기조 속에서 소비자들은 무조건적인 절약보다 합리적 선택을 통한 만족 극대화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전국 만 13~69세 남

녀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0% 이상이 평소 가성비를 꼼꼼히 따진다고 답했다. 가격 대비 효용을 중시하며, 남들의 시선보다 자신의 필요와 만족을 우선한다는 응답도 80.6%에 달했다. 반면 고가 브랜드·명품 구매를 사치로 인식하는 비율은 83.3%로, 브랜드보다 제품 자체의 가치를 중시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듀프(Dupe) 제품에 대한 관심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듀프 제품을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6.5%에 그쳤지만, ‘자세히 몰라도 관심이 있다’는 응답은 47.4%로 높았다. 듀프 소비에 대한 평가는 긍정 응답(48.8%)이 부정 응답(9.5%)을 크게 웃돌았으며, 구매 경험자 중 절반 이상은 만족한다고 답했다. 특히 합법성과 윤리성에 대한 요구가 저연령층에서 높게 나타나, 향후 듀프 시장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패션&뷰티, 취향과 서사를 담아

패션 시장은 ‘버드나무(WILLOW)’와 같은 유연한 대응이 생존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삼성패션연구소는 내년 패션 시장을 관통할 키워드로 ‘수기응변(隨機應變)’의 태도를 강조한 ‘WILLOW’를 제시했다. 이는 거센 세파에도 꺾이지 않는 버드나무처럼 급변하는 환경에 민첩하게 적응해야 한다는 의미다.

연구소는 내년 패션 시장이 2%대의 소폭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을 주도할 동력으로는 대형 브랜드가 아닌 ‘작은 브랜드’들이 꼽혔다. 소비자들이 단순히 유명 로고를 쫓기보다 자신만의 취향과 서사가 담긴 브랜드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AI 기술의 진화도 시장 판도를 바꿀 변수다. 생성형 AI가 쇼핑 여정 전반에 스며들며 소비자가 유연히 상품을 마주하는 ‘발견 중심 쇼핑’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제품 소유보다 ‘경험’에 가치를 두는 소비 패턴이 심화되

고, 고정관념을 깬 ‘진화하는 오피스웨어’가 부상하는 등 라이프스타일 전반에 걸친 변화가 예고됐다. 결국 2026년은 기존 관행을 버리고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브랜드만이 기회를 잡을 것으로 분석된다.

뷰티 업계에서도 가성비와 제품력을 모두 잡기 위한 혁신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저가’라는 가격 경쟁력에만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K뷰티가 독자 구축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브랜드 가치를 높인다.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등 뷰티 대기업도 초저가 시장에 적극 대응한다. 이미 성분과 효능을 입증한 브랜드와 함께 유통 채널별 맞춤형 전략으로 내수 시장을 공략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지지율 25%’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마지막 1초까지 일할 것...조기 퇴진 없어”
▲워런 버핏 버크셔 회장 “은퇴”...버크셔 주가, 1965년 대비 610만% 올라 /사진 뉴시스

▲中 시진핑 주석, 신년사 “홍콩·마카오 한 국가 두 체제...양안 통일은 역사적 대세”
▲日다카이치 총리, 신년사 “일본 강하고 풍요롭게 할 것...필요한 개혁 단행”

▲대만 라이칭더 총리, 신년사 “중국 야심 맞서 국가주권 확고하게 수호할 것”
▲러 푸틴 대통령 신년사 “모든 군인과 지휘관들에게 축하...승리 의심하지 않는다”